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2020 ENACTED BUDGET)에 뉴욕주의 노년층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별 서비스를 위한 역사적인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반영되었다고 발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령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본의 보살핌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이 반영된 예산

고령인 및 보호자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 총무, 뉴욕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오늘, 뉴욕주의 노년층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 지역별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역사적인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에 반영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의 노년층은 자신들의 가정과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노년층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첫 번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은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 기금으로 고령인 및 보호자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 서비스 및 사례 관리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뉴욕은 노년층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두 주자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인 뉴욕 주민이 우리 주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뉴욕주 상원 다수당의 우선 과제입니다. 주정부의 최종 예산에 고령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추가 기금을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상원 노령화 위원회(Senate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님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다수당은 뉴욕주 노년층의 건강, 안전, 독립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층 인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연령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고령인과 보호자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노령화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을 돌보는 방식은 주정부의 우선 순위가 반영된 방식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산 투자로 뉴욕주 노년층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여, 그들이 보살핌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령화 친화적인 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국을 선도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은 주정부 업무에 건강한 노령화 지원 업무를 포함시켜서 뉴욕을 노령화 친화적인 주로 만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의 노년층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투자합니다. 이 네트워크 서비스로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를 지원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에 조기에 개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발생을 지연시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간병,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 사례 관리, 주택 개조,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이 지역별로 해결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보고하는 카운티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규모의 1,500만 달러 반복 투자. 이렇게 예정된 투자로 평가를 받은 후 서비스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의 고령자 수천 명이 즉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 노년층 서비스 네트워크가 모든 소득 계층의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급자 네트워크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OFA)에 민간 자본 시장 개발 권한 부여
-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장기간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년층의 독립 생활 센터 파트너를 위한 카운티 사무국에 추가 자원을 제공하는 뉴욕 연결(NY Connects) 프로그램 시스템 개혁에 대한 주정부의 공약 강화

- 만성 질환 자가 관리, 당뇨병 자가 관리, 낙상 예방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치명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의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금 제공
- 뉴욕의 노년층 서비스 전문가 네트워크가 최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년층을 위한 네트워크 직원의 훈련, 교육, 주정부 자격증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자원 제공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OFA)은 60 세 이상의 뉴욕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사무국은 노년층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돕는 카운티 기반의 노령화 에이전시 59 곳과 1,200 개 이상의 민간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조율하기 위한 리더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OFA)과 그 파트너들은 지난해에 약 70만 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뉴욕주의 430만 명이 넘는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비공식 보호자들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노년층 친화적인 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지정에는 건강한 노령화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된 조정을 통해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의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를 대단히 중요한 틀로 사용하여, 주지사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공중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이 협력하는 [모든 정책을 통한 의료\(Health Across All Policies\)](#) 접근 방식을 개시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OFA)의 핵심 노령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정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20 Enacted Budget)은 노년층과 그 가족을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 실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와 정책 변화를 통해 자격이 되지만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재정 지원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산층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기술 기반의 측정 가능한 교육, 훈련, 주정부 자격증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중이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뉴욕주 노년층을 위한 주지사의 공약이 실천된 확실한 사례이며,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령화 친화적인 주로 지정된 이유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뉴욕주 상원 노령화 위원회(New York State Senate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인 **Rachel Ma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노령화 위원회(Senate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노년층은 당연히 품위를 유지하면서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일이 우선 과제입니다. 노령화 서비스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모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가정 내 서비스를 기다리는 90 대 노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올해 투자로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노령화되면서 필요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서비스는 주민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주정부의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기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 노령화 위원회(New York State Assembly Aging Committee)의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년층의 건강, 안전, 독립성, 삶의 질 등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출 계획을 통해 노년층 인구가 계속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삶을 즐기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뉴욕주 지부의 **Beth Finkel**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 진료 예약을 위한 교통 서비스, 일상 활동 지원, 유사한 서비스 등의 재정 지원을 역사적인 액수의 1,500만 달러로 증액한 일을 통해, 노동층 및 중산층 수천 가구가 사랑하는 가족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더 비싼 양로원에 보내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가족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 보호자를 지원하는 일은 상식적이고 재정적인 의미를 가진 일입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AARP)는 이 증액을 제안하고 최종적인 주정부 예산에 미국 최초의 민간 자본 프로젝트와 기타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그 반영을 보장함으로써,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홈 케어 협회(Home Care Association (HCA) of New York State)의 **Al Cardillo**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 케어 협회(HCA)는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이 혁신적인 새로운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Olsen** 국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창의적인 새로운 투자로 노년층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 케어 협회(HCA)의 홈 케어 에이전시를 선정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에 부속된 장기적인 보살핌 서비스에 민간이 재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홈 케어 서비스 및 장기 케어 서비스는 기본적인 주요 건강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홈 케어

협회(HCA)와 우리의 홈 케어 에이전시들은 뉴욕주에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주지사님 및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State Office for the Aging)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팬(Lifespan)의 Ann Marie Cook 대표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층과 그 가족 보호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일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님은 우리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뉴욕 주민이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더 나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Holly Rhodes-Teague 뉴욕 노령화 협회(Association on Aging in New York) 이사회 의장 겸 서퍽 카운티 노령화 사무국(Suffolk County Office for the Aging)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노령화 협회(Association on Aging in New York)는 노년층을 위한 네트워크가 고령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보장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에 감사드립니다."

리브온 뉴욕(LiveOn NY)의 Allison Nickers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온 뉴욕(LiveOn NY)은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자택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위해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에 중 점을 두고, 뉴욕의 노년층 인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예산이 발전적으로 편성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뉴욕의 노년층 인구를 지원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주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NY Connects) 프로그램에서부터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과 사례 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님 그리고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주신 주의회의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